

01 교회소식

기쁘고 행복한 날~

아프리카 54개국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활발히 전파하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02 생명의 말씀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해도 자원하는 사람마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담긴 의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영적인 의미가 담긴 특별한 숫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치료받으니 온 세상이 새롭습니다”

짧고 길었던 양쪽 다리의 길이가 정상이 되고 6년 넘게 고통받던 요실금을 치료받아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1007호 2023년 12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 예수교연합성결회 아프리카 총회장 임명장 수여식 가져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선교하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주일,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케냐 전역 및 아프리카 10여 개국에서 온 대표들과 케냐복음주의연합회(EAK) 사무총장 넬슨 마칸다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문신현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에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영상을 통해 창립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수진 목사는 “빌라델비아교회는 능력이 적을 때도 진리 말씀대로 살았으며, 시험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켰기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으로 아프리카 전역을 밝히는 등불 같은 나이로비만민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 김진홍 장로가 예수교연합성결회 아프리카 총회장 임명장 및 임명패를 문신현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더불어 케냐 900여 교단

연합체 케냐복음주의연합회(EAK) 사무총장 넬슨 마칸다 박사의 축사가 이어진 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선교회 대표들이 꽃다발과 선물 등을 전하며 축하하였다.

3부 축하 공연은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23주년 특별 매거진 상영 이후 아동, 학생, 청년, 여성교회가 준비한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케냐 KTN 방송에서 취재 보도하였으며 만민중앙교회에서 창립 축하 사절단이 참석해 성도들과 함께하며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 나이로비에 이재록 목사 스와힐리어 저서 10종 증정

기독교 출판 우림북에서는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아 케냐 나이로비를 방문해 이재록 목사 스와힐리어 저서를 증정했다.

지난 11월 10일, 나이로비만민교회 금요철야예배 1부 후 특별 행사장에서 아프리카 각국 및 케냐 만민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림북 대표 김진홍 장로는 “아프리카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믿음이 성장하며, 동아프리카 국가에도 스와힐리어 책자가 보급돼 다른 언어로도 출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인사했다.

이번에 우림북에서 증정한 책자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 『영혼육』(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복을 쫓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치료하는 여호와』, 『권능』 이상 10종이다.

나이로비만민교회는 도서관을 신설하여 증정 책자를 비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스와힐리어권 문서 선교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남동부, 즉 케냐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공용어이며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에서도 교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림북은 향후 스와힐리어 오디오북도 발간하여 아프리카 문서 선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준비된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디모데후서 2:20~21)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일꾼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절실합니다. 인간 경작이 끝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해도 자 원하는 사람마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있는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로서 쓰임 받으려면 준비된 그릇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준비된 자는 성결되어 영적인 힘이 있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그릇의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한데 과연 주인은 어떤 그릇을 골라서 쓸까요?

일단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국그릇에 담아야 할 것을 접시에 담으면 먹기가 불편하지요. 용도에 맞는 그릇 중에서도 주인의 손에 잘 맞는 그릇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 개의 그릇이 있어도 쓰기에 편하고 취향에 맞으면 그 그릇을 늘 쓰게 되지요. 또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인의 손에 맞고 용도에 맞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쓰임 받기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사명이든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곧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를 쌓아야 하지요.

주인의 손에 맞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동으로 가라는데 자기 뜻대로 서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그릇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큰 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운 그릇이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결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만큼 사명 감당할 능력을 더 받을 수 있고, 순종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므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엡 6:12; 고전 4:20). 영적인 힘과 능력은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성결돼 영적인 힘이 있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영적 변화가 더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영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더딘 이유

### 1) 구체적이고 지속해서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결을 이루고 싶을 뿐 낱알이 자신을 해부해 버리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게 해 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만으로는 변화가 늦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와 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육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게 여겨져야 하지요. 비슷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근신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버려 나가면 한, 두 달 지날수록 자기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발견은 잘하는데 발견한 것에서 그치고 맙니다. 모르고 있던 자신의 비진리를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왜 그런 비진리가 자기 안에 심어졌는지 성령께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주시며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침이 올 때나 그것을 회개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요. 마치 그 순간에 다 버리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들관에서 잡초를 뽑는다고 해도 뿌리를 남기면 금방 다시 자랍니다. 이처럼 죄성도 발견해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근본의 죄성까지 뽑아야 하며, 다 뽑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을 점검하며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발견되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중에 큰 뿌리부터 먼저 뽑아야 합니다. 큰 뿌리가 뽑힐 때 많은 잔뿌리도 함께 뽑히지요. 자기 안에 가장 크고 버리기 어려운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버리면 나머지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2)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로 포장해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틀을 깨지 못하므로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 하고, 충성하려 하고, 성결되려고 하기에 자신은 악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 (1)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덮는 경우

이러한 경우 중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일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화평을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부딪힐 원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때 자기 의와 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으니까, 화평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하며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녕 화평을 깨지 않는 마음이라면, 자기가 더 옳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에 맞춰줍니다. 때론 자신이 손해 본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요.

더구나 질서상 윗사람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비진리나 죄가 아니라면 먼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요. 내가 더 옳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화평을 깨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윗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윗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화평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화평해지고 싶지만 상대에게 맞춰 줄 수는 없다.” 변명하지요. 이는 진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머리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는 화평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깨도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나는 화평하려고 했다.' 하고 스스로 좋게만 생각하므로 신속하게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상대의 잘못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은 덮는 경우**

예를 들어 김 집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집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상대의 잘못만 생각합니다. 김 집사는 이 집사가 자신의 허물을 말했으니 화평이 깨어진 것이라 하고, 이 집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김 집사가 속이 좁아서 화평이 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정녕 성결을 사모한다면 상대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근신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딤후 5:22). 백 가지 중의 아흔아홉 가지는 상대의 잘못이고 하나만 자기 잘못이라고 해도 그 하나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진리가 발견되어도 이것을 부인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 이에 대하여 그를 깨우쳐 줘야 할 때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로 표현했어도 속으로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하지요.

전혀 감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만이 상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다면 상대를 바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에 치우쳐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지요.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말했으면서도 '사랑으로 말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감정 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끝까지 부인하지요. 이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루었다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없었다고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권면했는가?', '상대의 입장을 살피지 못하고 말함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얻었을 때 순간이지만 낙심되었다면 내 안에 시기 질투

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잠깐 떠올랐다고 해도 내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열른 돌이켜 버리므로 자기가 낙심한 것까지 부인합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노력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자기 안에 어떤 비진리가 드러났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낙심될 때 계속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돌이켰다고 해도 마음 근본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모습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돌이키기만 하니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성결을 더디게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성결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많은 영의 사람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철저히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모든 비진리의 뿌리까지 뽑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담긴 영적 의미**

**3 '합한 수'로서 '온전함을 이룬다'**

'합하다'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 또는 뜻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0세가 되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차례의 시험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배로 들어가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4 '땅의 수', '고난의 수'**

'땅의 수'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온 땅을 사방(四方), 곧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에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금식하신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6 '경작한다', '육의 공간에서의 완전함'**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실 때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인간 경작의 역사 6천 년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경작을 6천 년으로 잡으셨고, 이를 위한 인간 창조의 역사를 6일 만에 이루셨습니다. 이와 함께 육의 세계에서 면이나 부피, 높이에 있어서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이유는 '육의 공간에서의 완전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육각형이 맞물려 있는 벌집 구조, 곧 하니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벌집 구조는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제트기와 인공위성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7 '완전 수'로서 '완전함'**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반드시 일곱 번 뿌릴 것을 명하셨는데, 이는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뜻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었고(왕하 5장),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일곱 차례 기도한 후였습니다(왕상 18장).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심은(마 18:22)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12 '빛의 수'로서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12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11:9), 빛이 가장 밝을 때가 낮 12시입니다. 12는 '빛의 수'로서 영적인 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요 1:9).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 형성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공생애 기간에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셨는데, 인간 경작을 위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지요. 장차 들어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 성곽의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생명수 강기의 열두 실과 등 성경에는 빛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17 '행하는 수'로서 '열매의 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뜻으로, 이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는 7월 17일부터 물이 감하였고,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도 1년 17일이었습니다. 이는 대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이 이복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 갔던 때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무엇보다 17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한 바를 보이시는 '열매의 수'로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열매 맺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쌍둥이로 잉태되어 태중의 좁혀진 공간에서 골반이 뒤틀리는 바람에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다리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다 보니 자주 넘어졌고, 그런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속상했지요. 의사 선생님은 제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교회 새렘약속찬양팀이 무용하게 되어 저도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신 어머니가 대견해하시며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다리가 왜 그래~”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상처가 되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후로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은 물론 매주 주일예배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 기도를 받았고, 예배 후에는 우쉐메이 회장님(쿠알라룸푸르만민교회 담당)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치료해 주시리라 믿었지요.

두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걸을 때 절뚝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쉐메이 회장님과 교회 언니, 동생들도 매우 기뻐하며 저보고 쪼그려 앉아보라고 하였

### “하지 부동을 치료받았어요!”

뤼주잉 자매  
(16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만민교회)



하지 부동이란, 한쪽 다리가 짧아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양쪽 다리의 길이가 차이는 것을 말한다.

습니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 쪼그려 앉으면 중심을 잡지 못해 뒤로 넘어지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쪼그려 앉았을 때 뒤로 넘어질 것 같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격려하며 응원하니 용기 내어 쪼그려 앉았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참으로 행복해했고, 저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2021년 제 개인기도 제목 첫 번째가 다리 치료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초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다리를 치료받으니 온 세상이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졌지요.

이 가운데 학교 시험 성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우쉐메이 회장님이 매번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찬양과 율동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간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기묘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 계셔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6년 넘게 고통받던 요실금을 치료받았습니다!”

박정희 권사 (66세, 3대대 20교구)



2017년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럽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저는 뇌혈관이 막혀 있음을 발견하고 바로 약물을 투여해 뇌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후로 요실금이 심하게 온 것입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 기저귀 속옷을 입어야 했고 5분,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니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하루가 다 갔지요. 밤에도 네다섯 번은 화장실에 가야 하니 잠을 푹 잘 수도 없었습니다. 소변이 참아지지도 않고, 크게 웃거나 조금만 뛰어도 소변이 나오니 늘 불안하고 마음의 고통만 커갔지요.

이처럼 6년 이상 요실금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 만민 하계수련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철야를 앞두고는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작정 다니엘철야가 시작하는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기 위해 목욕하고 마음 다해 3일 금식을 하면서 치료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매시간 믿음과 행함으로 정성을 내보이면서 기도로 매달렸지요.

다니엘철야 마지막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으면서는 다른 성도들처럼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 하루하루 더 간절히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계수련회를 3일 앞둔 날 아침에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잠을 푹 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난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화

장실에 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해 일부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보고 오가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저귀 속옷을 입지 않고 일반 속옷을 입고 갔지요.

그런데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요실금을 확실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기저귀 속옷이 필요치 않고, 밤에 잘 때나 낮에 어디를 가더라도, 졸넘기나 땀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련회 전에 치료해 주셔서 얼마나 편안하게 수련회를 다녀왔는지요.

요즘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변화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리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010-5434-392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엘림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